

## 20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 49:20/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무역을 통해 부유해짐을 예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가나안 족속을 축출하는데 실패함으로 베니게의 간섭을 받음.  
- 왕의 식사를 차린다는 것은 이방에 예속되거나 굴복함을 암시.

## 21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 49:21/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번식중.  
'아름다운 소리': '새끼 사슴'일 가능성이 큼 - 지파의 번성을 암시.

## 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 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 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 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 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 49:22/ 번성: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 '무성한'은 들나귀, '가지'는 딸들, '담'은 소, 또는 산비탈로 해석하기도 함.
- 49:23-24/ 보호: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화살'은 요셉을 중상하는 비난을 의미.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맹공격에 직면해서도 요셉은 지구력을 가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활기가 넘치고 유연해서 거둬 활 쏘는 것이 가능.  
'야곱의 전능자': 주님의 구원 능력을 묘사.  
'이스라엘의 반석(돌)': 하나님의 예비를 묘사. 야곱이 자신이 베엘에서 세운 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음.  
'목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중에 주님이 그의 '목자'임을 인정(48:15).
- 49:25/ 축복: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축복'이 여섯 차례 등장.  
'네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 야곱의 축복 전체가 상징하는 유산의 모티브 강조.  
'너를 도우실 것이요': 군사적 지원을 묘사.  
'위로 하늘의 복':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연상(27:28).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창조의 이미지에서 끌어온 풍부한 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풍요로운 땅과 무수한 주민의 약속.
- 49:26/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고대의 산)이 한 없음 같이': 축복의 규모.  
- 고대의 산이든 조상들이 받은 것이든 과거의 축복을 능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고귀한 신분을 가진 구별된 자를 의미.  
-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애굽의 통치자라는 지위에 맞게 더 크게 축복을 받을 자임을 인정.

## 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 49: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정착기와 초기 왕조 시대에 작은 규모지만 군사적 업적을 이루는 것을 암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 밤에 잡은 먹이를 먹어치우느라 아침 시간이 다 갈 정도로 풍족함.

##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 49:28/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신뢰를 잃은 아들과 중요치 않은 아들도 축복에 포함.  
'분량대로': 이 나라에서 각 지파가 가질 역할에 '적합한' 것.  
- 미래에 이 나라는 통일성을 강화하면서도 각 지파가 저마다 고유한 역사를 갖게 될 것.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이 선포가 '축복'임을 강조.

## 12. 야곱의 죽음과 매장(49:29-50:14)

## 1) 유언과 죽음(49:29-33)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49:29/ '내 조상들(내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선조와 함께': 야곱의 논지 저변에 흐르는 가족 연대를 표현.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 요셉에게 정확한 매장 위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매장지의 위치와 역사와 거듭 진술(29, 30, 32).

49:30-32/ '이 굴은...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주도한 적법한 거래의 합으로 얻게 되었음을 밝힘.

- 매장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함을 상징.

- 야곱이 가나안에 매장될 것을 주장함으로써, 가족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드러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 자신이 그곳에 매장되는 것이 필연임을 강조: 아브라함-이삭-야곱.

49:33/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가 죽었다'를 생략함으로 미래에 대한 야곱의 신념을 고취시킴.

## 2) 야곱을 가나안에 매장하다(50:1-14)

1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2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50:1-3/ '요셉이... 구푸려 울며 입 맞추고': 야곱을 향한 요셉의 마음 깊은 애정.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사들에게 명하여 야곱의 사체를 미라로 만들라고 지시.

- 부패를 늦추기 위한 목적.

'사십 일이 걸렸으니... 칠십 일 동안... 곡하였더라': 40일은 70일에 포함.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명망을 대변.

50:4-6/ '바로 궁에 말하여': 제의적 부정이나 애도의 금기와 관련하여 왕을 직접 알현하지 않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야곱이 남긴 유언을 맹세로 받아들였음을 밝혀 왕의 동정심에 호소.

- 애굽에 매장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애굽 왕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바로는 쉽게 허락했을 것.

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50:7-9/ '바로 궁의 모든 신하와... 함께 올라가고': 장례 행렬의 규모는 야곱의 위상을 증명.

-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들들이 간소하게 매장한 것과 극명한 대조 -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자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알림.

'병거와 기병이... 그 떼가 심히 컸더라': 홍해에서 대처할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영을 암시.

- 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 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 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 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50:10-13/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벨미스라임(애굽 사람의 애도)이라 하였으니':

- 한 히브리인을 매장하는 일로 애굽의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킴.
- 미래에 이를 성공을 예견.

'야곱의 아들들이... 명령한 대로... 행하여...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 야곱의 요청에 나오는 언어를 반복하여 매장을 서술: 야곱의 유언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

50:14/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장례 무리들이 복귀함.

### 13. 요셉의 말년(50:15-26)

#### 1)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키다(50:15-21)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50:15-16/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형제들의 죄책은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고 야곱의 죽음은 형제들의 불안을 키움.
- 요셉의 형제들은 명시적으로 요셉에게 용서의 진술을 구하거나 받지 않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두려움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함.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형제로써가 아니라 아들로서 가진 의무에 집중하게 함.

50:17-18/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요셉은 받아들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 자신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들의 아버지가 가족에 둔 소망에 호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본질적으로 극악한 일이었음을 드러냄.

'요셉이.. 울었더라': 형제들의 소원함이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제들이 체포 되었을 때의 장면을 재현.

- 그러나 요셉이 꿈의 실현으로써,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함을 증명.

50:19-20/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설계를 침해할 수 없었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이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심.

- 인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 사이에 대조를 고조시킴.

-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벌인 일이었으며, 이 일은 너무 위대해서 요셉 혼자 이루기 어려운 일.

- 악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돕기 위해 품은 은혜로운 뜻에 굴복.

50:21/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 아버지의 죽음으로 형제들을 향한 자신의 자애로움이 변치 않을 것을 확증.

## 2) 요셉이 형제들에게 지시하다(50:22-26)

-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50:22-23/ ‘요셉이… 백십 세를 살며’: 요셉과 그 아버지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한 일이 오래되었음.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장수를 말하는 관례적 어구.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입양을 의미할 가능성.

50:24-25/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생존해 있는 형제들, 또는 그 후손들을 가리킴.

‘나는 죽을 것이나’: 야곱이나 모세가 임종 시 예언한 것에 부합-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전망.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 야곱과 달리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말씀의 권위에 호소할 수 없음 - 아버지의 증언에 의존.

- 땅의 선물과 관련해서 나오는 일반적인 신명기의 어구에 반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언급함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봄.

‘맹세시켜 이르기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돌아갈 것을 맹세케 함: 그러나 야곱과 달리 공식적인 애도는 없었음.

- 요셉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린 모범적인 믿음의 행동(히 11:22).

- 모세가 요셉의 소망을 성취함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됨(출 13:9).

50: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여호수아의 수명과 같음. 여호수아는 요셉의 석관을 관리, 감독했을 것.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 족장들이 받은 약속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믿은 요셉의 믿음을 배울 것을 요구.